

고은 불교 대하소설

구조(救助)

섬의 바닷가이므로 심사리 파도 위에 떠있는 우녀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인담의 예상은 파도자락의 급작스러운 난조(亂調)로 말미암아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기엔커녕 물 속에 뛰어 든 인담 자신의 몸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연달아 엄습 해오는 사나운 위력의 파도 더미에 그는 오래만의 해일질이 제대로 풀릴 겨를도 없었다.

인담이 그의 막대를 힘껏 잡아다녔을 때 그 막대 끝을 꼭 잡고 있던 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녀였다. 아니 우녀의 혼령인지도 몰랐다.

“우행자...”

인담은 갑자기 온몸이 긴장되며 그녀의 어깨쪽지를 잡아당겨서 그의 겨드랑이에 단단히 끼고 파도를 때리면서 끈두박질치다싶이 해업했다.

어떻게 그가 섬의 화강암 바위꼭죽에

러던 다음 그녀의 따귀를 낚다 갈겨냈다. 그러자 그녀가 툭툭퉁 퉁기침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됐어!”

하고 인담이 비로소 기쁨 가득히 우녀의 젖은 머리칼을 손으로 쥐었다.

“됐어! 우행자...”

우녀의 막힌 몸에서 물이 나왔으니 그 물이 다시 숨을 내쉬기 시작하였다.

“추위!”

라고 그녀의 입에서 첫 마디의 말이 나왔다.

인담은 맨몸 밖에 없었으므로 그녀를 등쪽에 업고 몇군데 밧등과 다리를 다치



12

그러는 사이 우녀는 별물이 시작되는 파도더미에 자만치 멀어져가며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였다.

인담은 해가 수평선에 꼭 잡히고 난 뒤의 덧없는 박명(薄明)에 의지해서 그런 우녀에게 다가가려고 발버둥쳤다.

그는 입었던 젖은 옷을 다급하게 벗어야 하였다. 옷통은 맨몸이고 그 아랫도리는 장방이가 걸쳐졌다. 한결 몸이 자유스러웠다.

그 자신의 절박한 의지와 파도더미의 횡포와 횡포사이의 어떤 의지가 하나로 되어 그는 훨씬 멀리 가 있는 우녀에게 가까스로 다가갈 수 있었다.

벌써 바다 전체는 어둠 속이었다. 배고픈 갈매기 따위도 온데간데 없었다.

거기에 난데없는 상아대 부러진 낚은 막대기가 잔 물에 실컷 담겨져서 마치 고려시대의 장경(藏經) 목판(木板)으로 쓰일 재목의 하나가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

인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짐승이 독초를 분간할 줄 모르고 먹어대는 것처럼 무조건 그 막대를 차지할 수 있었다.

“우...행자...”

하고 그는 그 길쭉한 막대를 손에 잡자마자 외쳤다. 그 입안에 잔물이 들어다쳐 벌떡 삼켜야 하였다.

어쨌거나 막대 하나가 그에게 그렇게 외쳐달 힘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우녀의 대우가 있을 리 없었다.

인담은 막대로 거친 파도더미를 헤쳐대면서 어둠속의 우녀 쪽으로 헤엄쳐 갔다. 헤엄쳐갔다기보다 파도에 떠밀리는 덕택에 의존한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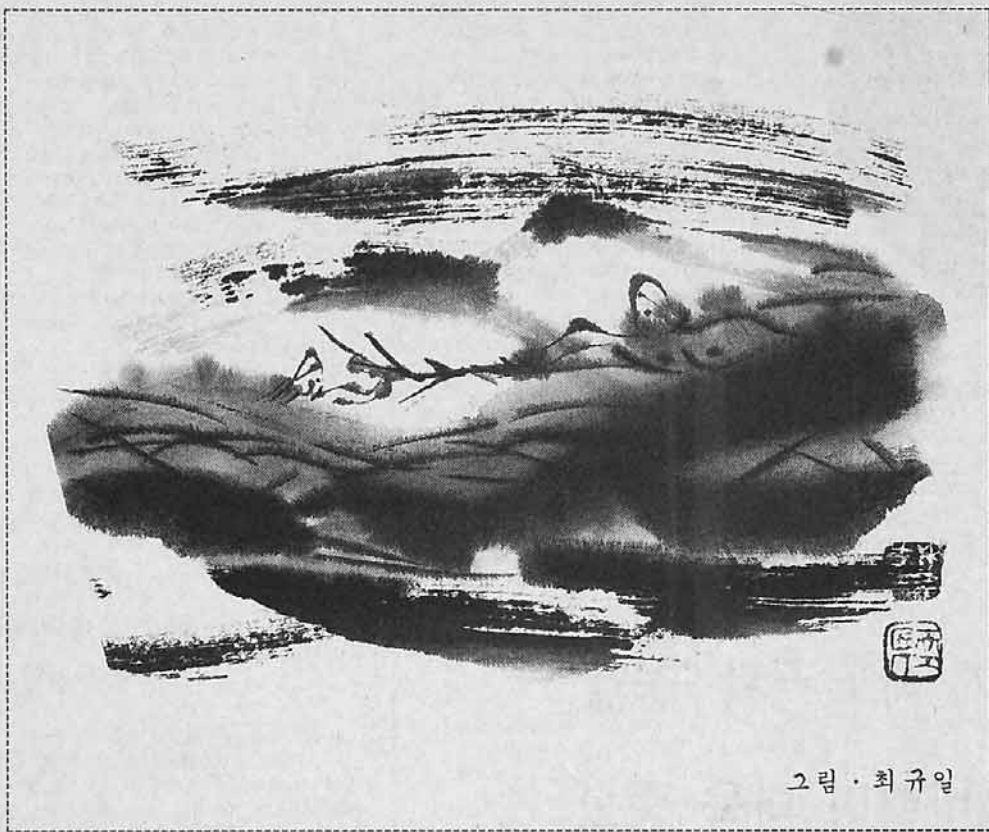
하지만 인담과 우녀의 만남은 어둠 속에서 비라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가 꼭 쥔 막대 끝에 무엇인가 접촉된 것 같았다. 그 일대를 밟히고 돌며 한쪽 팔을 내저었으나 그것은 한창 북으로 북으로 내달리며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조끼속의 맷대리 조끼들이 잠시 물속의 조류에 의해서 물위로 솟아올랐다가 막대를 건들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우행자...”

인담의 목소리는 처절해졌다. 그러나 그 외침은 외친 입에 파도의 물 한 부분이 다시 물켜 들어와서 그것을 토해내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어둠 속의 긴 모색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다시 한번 “우행자...”하고 외쳤을 때 그가 여기저기 어둠속의 하얀 아가리같은 파도의 거품을 막대로 휘젓다가 그 막대를 잡아다니는 힘을 느꼈다. 자칫하면 그것을 빼앗길뻔 하였다.



인담이 그의 막대를 힘껏 잡아다녔을 때 막대끝을 꼭 잡고 있던 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녀였다.

달랐는지 몰랐다. 그는 정신을 놓아버릴 수 없었다.

당장 우녀의 몸을 좀 평평한 바위위에 놓고 몸 속의 물을 꺼내야 하였다. 그는 그녀의 입에 대고 몸속의 공기를 빨아주며 배를 주물러 삼킨 물을 꺼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상아대 도막의 막대는 열혈결에 다시 파도 위에 떠내려 가버렸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대들의 목숨을 건져주었으니 내 할 일을 다함이라 하고 미련없이 떠나버린 것 같았다.

인담이 우녀의 배를 붙이 나도록 문질

면서 암자에까지 허겁지겁 갈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우녀를 눕히고 인담 자신도 그 자리에 쓰러져 단장 기침한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인담이 눈을 뜬 것은 다음날 새벽에 불시간에 맞춰서였다. 그런 형편에서도 예불때에 대한 그의 해몽을 수 없는 일과 의식이 살아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자 어제 저녁때부터 몇시간 동안의 감강한 파도 위의 일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서 반주되고 있었다.

우녀는 그의 앞에서 진작 잠을 깨어서

“그랬을테지. 암 그랬을테지.”

새벽이 다하고 있었다. 인담은 우녀가 어떤 소리를 해도 그저 풍년든 들켜처럼 넉넉한 심정이었다. 아니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까지 이른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오전의입정(入定)은 하지 않고 두사람이 함께 밤바다의 시련을 겪은 심신을 쉬고 있었다. 대강 몸을 씻었다하나 아직도 머리칼이나 귓볼에 잔 것이 남아 있었다.

“해가 없다면 시간이 있었어요?”

“해가 없다면 시간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우녀는 어느새
우주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 말은 우녀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 마디였다.

어느 사이에 그녀는 우주를 감지하는 철리(哲理) 따위에 들어가 있었다.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고행이 이렇게 한 여자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인가.

인담은 물의 한 방울이 유난히 발을 좋아하여 잠을 자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 방랑승은 본사(本寺)도 없고 물론 일정한 주처(住處)도 없이 떠돌고 있으며 더구나 약간의 낫잡 밖에는 밤은 숙제 눈을 귀신과 같았다.

인담이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다.

“스님께서는 왜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흐...자네가 나를 밤새도록 기찰이라도 한 모양일세... 나야 밤하늘 없이는 못사는 사람일세. 별들을 보는 일이 내 일이라네. 아니 나는 낮에도 해를 보아야 한다네.”

“해를 보면 눈을 버리지 않습니까?”

“음. 그런 눈이라면 버려도 좋겠지... 상고시대 천축의 세계에서는 말이야... 태양(太陽)은 태음(太陰)의 지아비이지. 그 태양의 마차(馬車) 차축(車軸)의 맨 앞쪽이 마나스타라산맥 위를 한 바퀴 돌 때가 이 세상의 하루라네... 그런데 나는 그런 천축 사람들이 아는 시간 말고 커다란 우주의 시간을 알고 싶더네... 인간의 1년은 신(神)들의 하루인데... 그 몇천 신년(神年) 내지 몇만 신년까지도

내가 떠돌고 싶은 것이라네.”

“스님께서는 수행은 하시지 않으십니까?”

“수행? 수행이라...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것이 수행인가? 나같이 지향없이 떠돌아서 우주의 운행과 함께 하는 것이 수행이라면 어떻겠는가?”

지난 날의 이런 대화가 떠오르면서 우녀가 해를 시간의 등기로 삼고 있는 바에 저이기 마음을 움직였다.

인담은 마치 눈이 커서 허공의 눈구멍처럼 느껴지던 그 방랑승으로부터 ‘우주란(宇宙)’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인즉 그 방랑승은 바라문의 성전(聖典) ‘비슈누·푸라나’를 참나라 학승으로부터 익혔던 것이다. 바로 그 성전에 우주의 허공에는 아주 커다란 알이 떠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알려 ‘브라흐마신(神)의 달걀껍질’이라 하는데 그 달걀 안이 브라흐마신의 창조 장소이고 들레 또한 인간의 대지나 일월성진(日月星辰)의 천계(天界) 그리고 성현들이 수행하는 성계(聖界)가 들어있다 한다.

그 우주란 밖은 바로 물론 예워싸여있고 그 물의 두께는 우주란 지름의 10배이다. 그 물의 밖은 밝고 불의 밖은 바

라여서 언제나 비바람만 부는 곳이었다. 그 바람의 밖은 ‘나비스-에테르’가 두껍게 끼어있고 나비스 밖은 부타·아타라는 원소(元素)의 근원이 끼어있다. 그 부타·아타 밖은 ‘커다란 세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커다란 세계’란 근본원인으로서의 세계인 푸라나이며 그것은 원리(原理)를 뜻하고 있다.

바로 이 원리의 두께는 무한대인 것이다. 모든 세계와 사상(事象)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는데 이런 지극히 커다란 세계도 하나가 아니다.

말하자면 우주란은 우주 속에 몇천만 개로 널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한한 우주의 모든 세계에 대한 근본원인 가운데는 하나의 우주정신인 ‘폰스’ 또는 ‘푸르샤’라는 신령스러운 추상의 핵심이 들어있다. 마치 목재 가운데 불이 잠재해 있는 것처럼, 어미의 물 가운데 아이가 잠재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정신을 지지하는 것이 비슈누신이고 다른 제신(諸神)이기도 하다.

바로 이같은 태초의 우주 문턱에 지난 날의 실성한 남자 우녀가 한 그윽한 수행자로서 들어서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이 환출한 육감을 자아내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몸을 능가하는 햇살의 눈부신 우주의 정신이 그 물 가운데 엄연히 들어있는 것을 인담이 전율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짐작하게 되었다.

절 찾아 가는 길

점점 녹색어가는 “우리절 이정표”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맘 먹고 장만한 「우리절 이정표」 막상 비 오고 시간이 흐르면 녹색과 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집니다. 간편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드는 곳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희 「가람기획 이정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영구적인 스텐레스 재질로 디자인까지 산뜻합니다.

또한 저희 「가람」에서는 불교의 전문화·고급화·대중화를 위하여 불교미술문화를 소재로한 디자인의 현수막과 전국사찰지도·사찰연혁판·게시판·리본·상패·포스터·팸플렛·세계불교기·법륜기·만들기 등과 각종행사 기획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람기획」은 오직 「불자」됨을 자부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110-1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 720-5121, 2874 FAX 732-3769

가람기획 대표 이주영 합掌

모 집

* 본 학원은 큰 규모와 탄탄한 강의를 자랑합니다.

- 일본어를 배우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기초부터 고급회화까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사무보조 내근직 아르바이트도 제공됩니다.
- 불자라면 특히 좋습니다.

문의 전화: 737-5689

니시무라(재일교포) / 한국명: 김광섭

일본어 문화원